

제 72 호

예수 부활 대축일

1974. 4. 14

순정이

발행인 김 영 일
 인쇄인 할 승 천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부활절 교서】



진리와 사랑으로 부활을 증거하자!

김 재 덕 주교

친애하는 신부, 수녀 그리고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사순절 동안에 회개와 내적 쇠신을 단행하기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이제, 봄이 왔습니다. 죽은 듯한 만물은 다시 싱싱하게 소생하고 있습니다. 4월 혼풍의 화창한 날씨는 우리의 마음을 한결 가볍고 부드럽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죽으신지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기념하고자 여기에 모였습니다. 사실, 세계 역사상 최초의 일요일인 주님의 날, 아침 해가 떠오를 때, 무덤을 찾아가던 몇 제자들에게 흰옷 입을 천사가 “그이는 이미 부활하셨다”는 두렵고도 환희에 넘치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배부시는 평화와 기쁨이었으며, 우리 인생에게 한없는 희망을 안겨주는 복음이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는 사도들의 후계자로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이 교서를 보내는 바입니다. “집내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주님께서는 당신이 미리 말씀하신대로 오늘 다시 살아나시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그분과 함께 죽었으니 또한 그분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히 살 것입니다.”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이제 나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 부활의 의미를 사목적 장을 통하여 잠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상이신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아담의 후손들에게 최초의 범죄 때부터 이저러졌던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간의 손으로 일하시고, 인간의 지력으로 생각하셨으며, 인간의 의지로 행동하시고, 인간의 마음으로 사랑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그분은 죄를 빼고서는 모든 점에 있어서 우리와 비슷하셨습니다.” (히브4, 15)

이렇게 인간 본성을 취하신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인간 본성을 소멸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인간 본성은 또한 고상한 품위까지 들어 올림을 받았습니다. 성자 예수그리스도는 이렇게 하심으로써 당신을 우리 모든 사람과 일치시키고, 모든 사람에게 새 생명을 얻어 주셨습니다.

(2면에 계속)

* 이주일의 미사 *

□임당송 주 참으로 부활하셨도다. 알렐루야. 당신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다이다. 알렐루야.

□제1독서 (사도행전 10, 34^a, 37-43, 성서 P. 290)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셨다.

□증계송 ◎이 날이 주께서 마련하신 날, 이 날을 기뻐하자, 찬미를 주자. 주님께 감사하라, 그 좋으신 분을 영원도 하시어라, 그 사랑이여 이스라엘 가문아, 일컬으라, “영원하신 그 사랑”◎

□제2독서 (골로사이 3:1-4, 성서 P. 460)
그리스도께서 천상에 계시니 천상것을 추구하라.

□부속가 빠스카의 희생제 찬미를 드리라, 그리스도인아, 어린양이 어미양을 살려냈음이며! 죄인들을 성부께 화해시켰나니, 죽음과 생명이 서로 겨루어 묘한 싸움을 하더니, 죽으셨던 생명의 주, 살아서 왕하심이며! 말하라, 마리아여, 무엇을 길에서 보았던가? 살아 계신 그리스도 그의 무덤을, 부활하신 분의 영광을 목격자 천사들을 수진과 옷을 내 보았노라. 내희망, 그리스도 다시 살아계시니, 그 제자들 앞서서 갈릴레아로 가시리라. 그리스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정녕 부활하심을 우리는 아노리, 승리자 임금이시여, 우리를 여여빠 여기소서,

□알렐루야 알렐루야, 그리스도 우리의 빠스카 제물로 희생되셨도다. 알렐루야.

□복음 (요한 20:1-9, 성서 P. 258)

예수께서는 죽었다가 반드시 살아나실 것이었다.

○저녁미사 (루가 24:13-35, 성서 P. 199)

□신자들의 기도

1. 우리는 희망이신 그리스도여, 당신은 부활하셨습니까. 당신을 믿고 바라는 우리의 소망을 더욱 굳세게 해주소서. ◎

2. 당신의 부활에는 고통과 죽음이 있었습니까. 안일하게만 살려고 하는 우리의 생활에 쇠신을 주소서◎

3. 모든이의 희망이신 그리스도여, 실의에 빠져있는 형제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소서. ◎

+. 주여 비오니, 희망의 불기둥인 우리 교회로 하여금 당신이 주신 사랑과 평화를 온 세상에 널리 퍼게 주소서. 우리 주. ...◎ 아멘,

□부활 감사송 제 1

□영성체송 그리스도 우리의 빠스카 제물로 희생되셨으니, 순결과 진실의 누룩없는 빵으로 축제 지내사이다. 알렐루야,

* 순정이 산책 *



알렐루야 예수부활

(1면에서 계속)

즉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과 화해 시키시고, 우리 사람들 사이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수난하신 발자취를 따라 새로운 삶의 길을 찾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죽음에 새로운 뜻을 지니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는,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만이로 부활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며, 그분과 공동운명을 지니고 있는 작은 그리스도(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바로 그 성신의 힘으로, 하느님의 자녀로서 새로 태어났고 사랑의 새 계명을 지키면서, 육신이 완전히 속량되기까지 날마다 내적쇄신을 거듭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신 하느님의 성신께서 여러분의 속에 계시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죽을 몸까지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로마8, 11)

그리스도 신자인 우리는 이와같이 빠스카 신비에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죽음을 닮은 모습으로써, 벽차오르는 희망을 품고, 해마다 더욱 가까이 이 부활을 향해, 힘차고 즐겁게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부활을 믿고 그것을 생활화 해나가는 우리 신자들을 통하여, 마침내는 온 인류가, 인간의 신비를 밝혀주는 부활의 신비를 깨달아, 구원 받게 될 것입니다. (사목헌장22조참조)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뻐 용약하며 기념하는 이유이며 예수부활의 신비스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사도들로부터 이어받은 전통적인 우리 교회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친애하는 신자 여러분,

나는 지난 한해동안에 참으로 많은것을 여러분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주교인 나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교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어렵듯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날로 격증하는 인구 문제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세상은 자꾸만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 사이 뿐 아니라, 집단과 집단사이, 더 나아가서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상호의존 관계가 날로 더욱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회생활의 많은 분야가 전문화 혹은 자율화 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현상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생활을 윤리내지 종교분야에서 부터 분리시키며, 그리스도교 신자생활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사도적 활동이 얼마나 긴급히 요청되고 있는지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천주교구를 생각합니다. 마침, 화해의 성년을 맞이하여 우리 교구에서는 도처에서 많은 기도를 바치고 목상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각 지구별로 혹은 각 본당에서 피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구에서는 공소에서까지도 "보다 나은 신자"와 "보다 나은 교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여러차례에 걸쳐 성년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울러서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구의 모든 사도적 활동이 더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언제나 활발히 전개되기 위해서는 "상하좌우(上下左右)로 모두가 함께 마음을 터놓고 진리와 사랑안에 대화를 나누며, 서로 신뢰하면서"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신뢰를 받지 못할 때 부자유를 느낍니다. 그러나 신뢰는 자유를 주고 책임을 느끼게 합니다. 또 우리는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공제로서 함께 협력하여 일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책임을 느끼며,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누며, 서로 신뢰하면서 사도적 활동을 떠나갈 때 비로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이웃에게 올바르게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부활의 기쁨을 우리는 "진리와 사랑"안에서 서로 나누고 보존하며 또한 세상 끝까지 이를 증거하기로 다 함께 힘쓰도록 합시다.

끝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평화가 언제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목자로서의 축복을 드립니다.

1974년 4월 14일

<천주교 전주 교구장>

알렐루야!

온 가정에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1974년 부활절

천주교 전주 교구장 김재택 주교

◆ 광고 안내 ◆

그간 순정이 광고에 대하여 여러가지 좋은 의견 주심에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순정이 광고를 통하여 교형 자매 상호간의 친교를 나눈 높은 물론 경제적인 면에서도 상부 상조의 미풍이 조성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배전의 협조 주심을 바랍니다. 경제적인 현실정을 감안하여 광고료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광고료는 편집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순정이 1회분 만평과 만화의 동판 대금으로만도 1,400원이 소요됩니다)

- 안내 1. 1회 광고료(4cm×5cm) - 800원
- 2. 1개월 이상인 경우 - 1회 700원
- 3. 3개월 이상인 경우 - 1회 600원
- 4. 부활 주일(4월14일)부터는 선불해 주시는 광고만 게재합니다.

순정이 편집실

양 지 쪽



닐리리아

김길수

닐리리아는 통소, 나팔, 피리등 관악(管樂)의 풍유소리로서 노랫가락 후렴에 붙는 기쁨의 환호성이다. 꽃가루 뿌려진 봄의 향연에 어울리는 장단이다. 슬픔과 괴로움 등 온갖 고초가 닐리리아의 향연속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승화된다. 닐리리아는 한국식 알렐루야 (하느님을 찬미하자)의 다른 이름이다. 들다 억압과 구속에서 해방된 감정의 멜로디이기 때문이다.

봄과 함께 생명이 소생하는 계절이 되면 우리는 또 하나의 커다란 기쁨을 갖게 된다. 그것은 부활의 닐리리아 (알렐루야)이다. 부활은 진정 가톨릭 신앙의 중심이요, 바탕이며 우리의 마지막 이상이다. 그리스도의 탄생인 크리스마스가 구속대업을 시작하는 창조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면 부활은 구속사업의 종지부를 장식하는 완성과 결실의 날이다.

부활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죄악에 대해서 최후의 영광과 찬란한 승리를 거둔 엄청난 기쁨의 사건인 것이다.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깨고 온인류앞에 삶의 희망과 재기의 기쁨을 안겨 주었다. 승리의 개선기를 죽음의 골고타 골짜기에 꽂고 성금요일의 비통과 슬픔에서 해방되었다. 사도 바오로가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설교도 헛되고 너희 신앙도 헛되어 우리는 하느님의 거짓 선교자로 인정되리라(고린트전서15.14)」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의 가치는 우리들 존재의 의미를 부여한 최고의 희망인 것이다.

그러나 부활은 우리에게 마냥 즐겁기만 한 사건은 아니다. 마치 카니발에서 먹고 마시고 뛰노는 의형적 행사의 기쁨은 아닌 것이다. 오히려 죽음을 직시한 엄숙한 기쁨인 것이다. 알렐루야의 개선가는 결코 우연히 발생한 것은 아니다. 십자가 없는 알렐루야는 리듬과 멜로디가 없는 노랫가락과도 같은 것이다. 찬란한 봄의 정기(精氣)가 나뭇(裸木) 속에 흐르는 생명의 겨울 잠을 전제로 하듯 부활은 골고타의 핏물을 전제로 한다. 나뭇이 되기까지의 누에고치는 암흑속의 기나긴 기다림의 인고(忍苦)가 필요한 것이다.

「텃밭 무덤」(마음) 속에 알렐루야와 닐리리아의 대합창이 울려 퍼졌다. 이제 기쁨의 비상(飛翔)이 있을 뿐이다. (성심여고 근무)

가톨릭 센터 프로그램 (관장 신부 박진량, 간사 안지은, 전화 ②3498)

- 매주 일요일 오후 3시...이삭회
- 매주 월요일 7시 반...메아리합창단
- 월, 화, 목요일 7시 반...일본어 교실
- 영어교실 매주 월~목 7시
- 목요일 8시....."목요일 밤에" (남녀 젊은이들의 대화)
- 금요일 8시.....레크레이션 (주최; 가톨릭 센터와 J.O.C.)

시민상담실-건강, 여성, 외국, 교육, 결혼, 신앙 등 매주 월~토 밤 8~9시
 결혼강좌: 결혼 적령기의 남녀 대상 (4월15일-19일까지, 매일 밤 8시-10시 까지)
 말씀의광장: 예수 부활과 교회 해신 (4월22일월요일 밤8시)

* 이주간의 성경

- 15(월) 독서(사도행전 2:14, 22-32, 성서 P. 266)
- 16(화) 독서(사도행전 2:36-41, 성서 P. 268)
- 17(수) 독서(사도행전 3:1-10, 성서 P. 269)
- 18(목) 독서(사도행전 3:11-26, 성서 P. 270)
- 19(금) 독서(사도행전 4:1-12, 성서 P. 271)
- 20(토) 독서(사도행전 4:13-21, 성서 P. 272)
- 복음(마태오 28:8-15, 성서 P. 73)
- 복음(루가 24:35-48, 성서 P. 200)
- 복음(요한 20:11-18, 성서 P. 259)
- 복음(마르코 16:9-15, 성서 P. 119)
- 복음(루가 24:13-35, 성서 P. 199)

장의차·꽃상여·입관 입관부속
일체 구비

최씨관집

◎ 교우들에게 특별염가 봉사 ◎

최병화 (그레고리오)
전주 남부시장 B동 87호
(전화 ② 6691 교훈85번)

☆ 집결 도장 청부 ☆
각종 페인트, 니스, 수성 페인트
방수액, 안료, 왁스, 본드
비닐장판, 포리에치렌, 고급벽지

대동 페인트 상사
대동 지업사

● 동문 배거리 (풍남동 1가 17)
전화 ②5986
임도민고(정원)

요심이 (39) 김병오

예수부활은 어떤 뜻이 있나요?
 예수님이 예언한대로 부활하셨기에 천주교 교리가 거짓이 아님이 증명되었지

사람은 예수님 처럼 말보다 행동이 앞서야 하느니라

작년 여름 방학 때 결정하고 실천 못한 것을 지금 당장 해야지

저 지금 해수욕장에 다녀 오겠습니다. 염마

현대인의 필수 조건은
 양서를 골라서
 읽는 것이다. (T.2~7398)
 *성심 바오로 서원

여러분의 아늑한 휴식처!
 프랑스제과
 립립찾집
 전주 전신전화국 앞

알렐루야!
 예수그리스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읍니다
 1974년 부활절
 천주교 전주교구 사무 협의회
 숲 정 이 편 집 실

1. 결혼 강좌 신청 마감 (4월 15일 오후 5시까지, 가톨릭 센터, 참가비 및 교재비 : 500원
(센터회원은 300원))

- ① 강좌 기간...4. 15(월)~19(금) 오후 8~10시
- ② 친구중 신자로서 수료증 소지자는 혼인 참고를 면제받음.

[소]

2. 제6회 말씀의 광장 (4월 22일 오후 8시, 가톨릭 센터)

- ① 주제 : 예수 부활과 교회 쇄신
- ② 말씀하실 분 : 은명기 목사(전주 남문교회), 지정환 신부(신용조합 지도 신부, 임실 "정환 치즈공장" 사장)

[식]

3. 성년 피정 (그리스도 공동체 목상회) ...회비 3,000원, 장소 가톨릭센터

- ① 당해 본당 신부
- ② 당해 본당 남자 평신도 2명
- ③ 당해 본당 여자 평신도 1명
- ④ 타본당 수도자 및 교회 기관 본직 수도자

4. 4지구 사회 분과회의 소집

일시 : 4월 18일 (목요일) 오후 8시 장소 : 덕진성당 사제관
 안건 : 4지구 체육대회 위원장 : 송정원 지도신부 : 김종택

※ 각 본당 사회부장, 차장님들의 참석바랍니다.

(중앙)

전화 @2651 주임 신부 안복진 신사
 @3874 보좌 신부 박창복 사도 회장 이복석

1. 부활 대축일 미사 : 오전 10시 (주교님 집전), 오후 7. 30분
2. 병자 봉성체 : 15(월)까지 신청바람.
3. 전자 오르겐 특별헌금 : 감사드립니다.
 2만원 : 김병주, 5천원 : 박봉익, 천원 : 서정태, 이젤프루다 누계 92,000원
 □지난 주일 봉헌금 41,206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합승철 사도 회장 조해형

1. 부녀회 월례회 (다음주일)
2. 축하합니다 (부활절이 영세하신분들 35명)
3. 본당 신부님 수원 빈센트 병원 입원중
 지난 8일날 전강상 입원하셨는데 병명은 아직 모르고 있으니 교우들의 많은 기구 부탁드립니다.
4. 부활 축일에 축하합니다.
 성프란치스코회 작은 형제 수사신부, 예수님의 부활축일을 맞이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5. 노송동 신축에 협조해 주신분, 감사합니다.
 만원 : 익명 2분, 노인석(벨라도), 5천원 : 방수산나
 3천원 : 김순이(분다), 2천원 : 김숙자(테레사)
 천5백원 : 박태수(벨라도), 천원 : 이혜조(헤레나)
 이우순(아가다)
 □지난 주일 신축기금 43,500원 누계 1,162,222원
 지난주 신축성미 3말 누계 160말
 지난 주일 봉헌금 14,520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8082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김종환

1. 본당 공소간에 친선 배구 대회 (오늘 공식 미사후 미사후 조직된 각 배구팀은 참가비 500원씩 가지고 배구장에 모여 주시고 교우분들의 많은 참여 및 뜨거운 응원 있으시길 바랍니다)
2. 신용조합 임원회 (오늘 공식 미사후) 임원들의 빠짐없는 참석 요망합니다.
3. 신용조합 월례회 (다음주일 <20일> 공식미사후) 전 조합원 참석 요망. 단 불참석시엔 대부 받는데 1할씩 공제하게 되오니 이점 유의하십시오.
4. 미사 시간 변경 월, 수, 금요일 : 오전 6시, 화, 목, 토요일 오후 8시
5. 아동교리 없음 (배구대회로 인해서) 아동미사 : 오후 4시에 있습니다.
6. 장학생 선발 (고등, 대학생에 한해서) 성적이 우수한 교우로써 생활이 곤란한자. 4월20일까지 본당 총무님께 신청바람
7. 애령회 기금 조성
 지난 주일 성미 1되, 누계 9되
 ☆ 축 결혼 (4월16일)
 신랑 : 윤홍택(미카엘) 신부 : 박진숙(막달레나)
 □지난 성 목요일 헌금 3,001원
 지난 주일 봉헌금 5,870원, 감사합니다.

(복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1. 복자 성우회 (오늘 공식 미사후)
2. 성년 판공 성사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신 신부님들과 협조해 주신 교향자매 여러분 성사 보신분 : 364명 타본당 성사 보신분 : 36명 아직 보지지 않은 분들은 속히 성사에 입합시다.
3. 영세분들에게 축하드립니다. (27명 : 12일 성 금요일 밤 7시반)
 착하고 열심히 헌 주님의 자녀가 되어 신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기구 부탁드립니다.
4. 74년 3월말 세입, 세출 결산보고
 세입 1,220,625원, 세출 1,122,175원 잔액 98,450원
 본당 재정 유지, 운영관리, 선교에 더욱 분발합시다.
 □지난 주일 미사 참여자수 10시 284명, 지7 162명
 지난 주일 성미 2말 6되 누계 272말 4되
 지난 주일 봉헌금 15,260원, 감사합니다.

(서학동)

전화 @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이거영

1. 성년 행사 (많은분들이 고백성사를 뵈었습니다) 본당 교우 : 340명, 전동교우 : 31명, 기타 : 5명 상관에서 많이 참석했습니다.
2. 성사표를 가져가시고 성사 보시도록 춘 판공성사 미필자가 많으니 조속한 시일내에 빠짐없이 보십시오.
3. 교무금 납부 요망 (교구 납부금 9만원이 남아있음) 하루속히 납부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예비자 교리 시작 (다음주일 공식 미사후)
5. 화요일 아침 미사도 변경
 평의회 관계로 이주장은 변경되었습니다.
 ☆ 축 결혼 (오전 10시)
 신랑 : 박영철(바로르) 신부 : 황문옥
 □성년 봉헌금 10,180원
 지난 주일 봉헌금 9,470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범석규 사도 회장 송재진

1. 예비자 교리 (매주공식, 저녁미사후)
2. 자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3. 주일학교 일일교장 (한상갑 선생님)
4. 미사시간 변경
 주일 : 첫 미사 (오전 5시반) 둘째미사 (오전 9시) 공식미사 (오전 10시, 오후 7시반)
 평일 : 월, 화, 목, 금 (오전 5시반) 수, 토 (오후 7시반)
5. 학생회 소식 (부활절 달걀 판매 및 중학생 총회) 각 세 회원들과 교향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6. 신용조합 소식 (전주 대진 신용조합 임시총회)
 일시 : 1974. 4. 14 (오후 8시반) 장소 : 강당
 ☆ 축 결혼 (4월 20일 <토> 오후 2시)
 ☆ 신랑 한상갑 군과 신부 최병길 양 ☆
 □지난 주일 봉헌금 37,215원, 감사합니다.